

변혁의 시대 헤쳐갈 실용적 지혜 넘쳐나

2001년 경제·경영·실용서의 흐름을 읽는다



올 한해 경제·경영서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진 점 가운데 하나는 경영방식이나 리더십의 역할 모델을 역사적 인물에서 찾은 도서들이 많이 출간됐다는 것이다. 《책 제바라시 경영》(박현우, 디지털머니랩), 《왕건에게서 배우는 디지털 리더십》(김석우, 느낌이있는나무), 《마틴 루터 킹의 리더십》(도널드 T. 필립스, 김광수, 시아출판), 《다윗 섬김의 리더십》(밥 안디안, 강주현, 경영정신), 《예수의 비즈니스 리더십》(찰스 C. 맨즈, 이종인, 해냄), 《섬김과 나눔의 경영자 간디》(케사반 나이르, 김진옥, 씨앗을뿌리는사람) 등이 그런 책들이다. 이 책들은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경영방식이나 리더십을 경영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역사적 인물들에게서 찾아내고 이를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다. 《인간존중경영》(공 건, 안춘식, 지식여행)도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인간존중 경영 이론을 공자의 유가사상과 연결시켜 설명한 책이다.

여성리더십 · 실패학 바람 불어

또한 올해는 여성경영자와 여성 리더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해보다 높았다. 이런 관심을 반영한 책들은 남성과는 다른 여성만의 기질과 장점을 당당히 지도자의 덕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남자처럼 일하고 여자처럼 승리하라》(장 게일 에반스, 공경희, 해냄), 《백만장자가 된 여성들의 특별한 원칙》(벤티나 플러스 외, 김양미, 씨앗을뿌리는사람), 《여성 CEO들의 새로운 성공법칙 10가지》(수잔 에이브럼스, 김영신, 여성신문사) 등이 그 책들이다. 《여자의 마음으로 경영하라》(에스더 위크스 부, 강미경, 세종서적)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보통신, e비즈니스 등의 분야에서 남성적 경영의 한계를 극복한 여성경영자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추세여서 앞으로 이들의 노하우를 다룬 책들은 꾸준히 출간될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우울한 일요일은 없다》(로빈 A. 슈어러, 이진홍, 청아출판사), 《점심 전에 시작하라》(스티브 슈프만, 권치오, 좋은책만들기) 등은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 책들인데, 이전의 책들과 다른 점은 이제 직장의 개념도 바뀌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직장인도 함께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절박함을 깔고 있다. 《탈직장 프로젝트》(브루스 탈건, 강우란 외, 친구미디어), 《프리 에이전트의 시대가 오고 있다》(다니엘 핑크, 석기용, 에코리

브르) 같은 책들은 이제 평생직장의 시대는 갔고 전직을 대비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아예 새로운 개념의 노동계층으로 프리 에이전트의 부상을 예고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는 실패학 바람이다. 일본에서 시작된 이 경향의 책들은 실패를 감추지 말고 냉철하게 분석해야 더 큰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충고한다. 《실패를 감추는 사람, 실패를 살리는 사람》(히타무라 요타로, 정택상, 세종서적), 《실패의 교훈》(니와 순페이, 이강의, 사과나무), 《천재들의 실패》(로저 로웬스, 이승욱, 동방미디어) 등이 그 대표적인 책들이다.

영어학습방법론 · 일본여행 인기 끌어

올 한해 출간된 경제·경영서 분야의 책들 가운데 중요한 책을 꼽으라면 《경영의 세기》(스튜어트 크레이너, 박희라, 더난)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지난 1백년 동안의 경영이론을 총정리하고 경영의 진보가 지닌 불확실한 요소들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지은이는 경영인들이 노동자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인간존중경영 이론의 생명력을 높이 사고 있다. 베스트셀러로는 지난해에 이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버트 기요사키 외, 형선호, 황금가지)가 꾸준한 인기를 얻었고, 피터 드러커의 《프로페셔널의 조건》(이재규, 청림출판)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잭 웰치의 《잭 웰치 · 끝없는 도전과 용기》(이동현, 청림출판)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

실용 분야에서는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마라!》(정찬용, 사회평론)류의 《그래, 아직도 영어공부한다》(김명기, 그린비), 《영어 공부 아무나 한다》(송승우, 삼진기획) 같은 책들이 꾸준히 출간됐고, 영어동화나 영어그림책으로 조기영어교육에 접근한 《영어그림책으로 시작하는 자신만만 유아영어》(서현주 외, 한울림), 《우리 아이가 영어동화에 푹 빠졌어요》(김인경, 풀빛)도 출간됐다. 월드컵 공동 개최로 한결 가까워진 일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듯 《세계를 간다—일본 100배 즐기기》(유재우 외, 중앙 M&B)가 꾸준한 인기를 얻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한 국내여행서들도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장근 기자